



그 위에八角塔身이
높여 있는데塔身은
全高에 比하여 過長
한 느낌이 있다. 塔
身各面에는 四天王
立像과 門戶形과 刹
窓門形이 彫刻되어
있다. 屋蓋 또한 八
角인데 隅棟이 뚜렷
하여 檐端에는 瓦當
紋과 角形浮椽이 달

리고 그 밑에 圓柱形과 다시 支輪形이 模刻되었으며 塔身圓柱上部에는
斗拱形이 結構되어 있어 當代 建築의 細部를 忠實히 따르고 있다. 頂上
의 相輪部는 喪失되었으나 七角形의 寶蓋石④과 圓形石이 重疊되어 있
다. 花崗石造인 바 各部의 架構와 彫刻에 있어 多少 均衡을 잃고 鈍重
함과 形式化의 손씨를 보이고 있으나 高約二m餘의 巨品으로서 高麗
中期以前의 佳作으로 推定된다. 當局者에게 所藏의 由來를 問議하여 보
았으나 日帝時에 古物商에서 購入하였다고 말할 뿐 아무런 資料가 없다
고 한다. 美術館入口에 放置되어 있는 高麗 龜趺 一座와 有關할 것으로
 짐작되나 原寺址와 塔碑名을 찾을 수는 없었다.

註

① 거의 크기가 같은 靑銅座佛 二座가 露天에 安置되어 있는데 李
朝初期의 作品으로서 巨像이다. 國內에서 볼 수 없는 作品인데 搬
出場所는 未詳이다.

② 庭園一角에 陳列되어 있는 바 李朝後期の 中鐘으로서 樣式의 特
異點은 없으나 相當한 字數의 銘文이 있어서 鑄造年月과 寺名 및
鑄成關係者가 列記되어 있다. 즉 鐘眉一處에 「主上殿下壽萬歲」가
鑄刻되어 있고 鐘身下部에는 左와 같은 鑄成記가 陰刻되어 있다.

康熙二十九年庚午五月日 固城縣西嶺臥龍山雲興寺大鐘重五百斤 大

- 鐘大施主金好成「大施主崔用鶴」嘉善大夫敬允
- 施主 趙戒汗「大施主大默」兼大鐘施主李三郎「大施主盧於叱金大
施主李時賢」鑄成通政大夫 金愛立「金禮發」大功德前和尚嘉善慈
洽「前和尚判司英下」前和尚通政 元敦「山中大禪師鏡臨」大師 就忍
鑄監兼和尚 性寬「三寶 呂天」首僧 祖下「持寺 審寶敬」鑄色兼書
記快「化主 幸旭」別座 信梅「供養主 假計」再右「鑄成所持殿
學湖」法堂持殿 省下「無甘」
- (高一m二五、下徑七七cm 上帶는 重圈梵字文 下帶는 寶相花文 四
乳廓間에 四菩薩立像이 配置되고 頂上에 雙龍鈕 있고 甬筒은 없음)
- ③ 現在四層으로 單層基壇上에 놓인 小塔인데 塔材에 後補가 있다.
- ④ 說明板에 이 八角寶蓋石은 後補라고 하였으나 그 下底의 蓮花文이
나 石質로 보아 再考를 要할 것이다. 相輪部의 石質이 塔身과 다
른 것은 우리나라 石塔에 있어 通有한 일이다.

高麗佛畫—阿彌陀像과 觀經變相

黃 壽 永

日本에는 壬亂以前の 우리 古文化財가 많이 傳世하고 있다. 더욱이 近
年에 이르러 古社寺의 寶物이 調査됨에 따라서 새로운 遺品이 發見되고
있는데 繪畫部門에 있어서는 從前에 中國畫라고 傳稱되어 오던 것이 韓
國畫로 判明된 것도 不少하다고 한다. 그리하여 高麗의 佛畫는 羅·麗
의 梵鐘과 더불어 國內에서 보라도 日本에서 더욱 많은 遺例를 볼 수 있
다고 할 것이다. 이 곳에 紹介하는 二幅은 今年에 들어서 注目된 것으로
 모두 發願文이 있어 年代와 因緣을 알 수 있었다.

一、阿彌陀坐像(重要美術品)一幅 日本 東京 根津美術館藏
絹本着色으로서 縱 五尺四寸一分 橫 三尺六寸인 바 今春 同館에 出品
되었었다. 蓮花座上에 結跏趺坐한 正面의 獨尊像으로서 法衣는 紅色과
綠色을 主調로 삼았고 八角臺座는 極彩色의 莊嚴을 하였다. 圓形金線의

頭光이 있고 兩手는 胸前에서 結印하였으며 胸部 中央에는 卍字가 金泥畫되었는데 傳來의 經緯는 알 수 없다. 下部 左右에 金字로서 縱書된 發願文이 있어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.

伏爲

皇帝萬年 三殿行李速還本國之願新畫成彌陀一幀

施主 權福壽

法界生亡兼及己身超生安養 同願道人戒文同願朴孝「眞」

大德十年

〔註〕 大德十年은 西紀一三〇六年으로 高麗 忠宣王 三十二年인 바 「元時代」의 作品으로 陳列되어 있었다.

二、觀無量壽經變相 ① 一幅 知恩院藏

今年二月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同院秘寶展②에 出品하려다가 事情에 의하여 保留되었다는 바 그後 東京國立博物館에서 撮影되었다. 絹本着色으로서 縱七尺四寸 橫六尺四寸의 大幅인 바 觀無量壽經의 順序를 따라서 阿彌陀와 그 淨土를 觀想하기 위한 十六觀의 變相을 그린 것으로 國內에서 同代의 遺例를 볼 수 없는 稀品이다. 下端에 朱地金字로서 十六觀頌과 發願文이 있어 年代와 僧俗名과 畫工을 알 수 있다. 知恩院에는 此外에 乙酉(成化元年 一四六五 A.D.) 十二月 李孟根筆의 觀經變相圖가 傳來하고 있어 그 構圖③가 이와 同一하다고 한다. 末尾에 보이는 發願文은 다음과 같다.

願以此功德「普及於一切」我等與衆生「盡生極樂國」至治三年十月誌
幹善道人日精「同願道人眞」同願道人志堅「同願道人戒澄」同願別將朴永文「同願夫人金氏」同願隊正金仁「同願大禪師承道」同願淨業院住持僧統祖「畫工薛沖」畫工李「」

(至治三年은 西紀一三三三年 高麗 忠肅王 十年이다)

註

① 「京寺遺寶撥英」第一輯(昭二三 東京美術書院刊)에 圖版과 鳥田修二郎氏의 解說이 있다.

② 이 곳에 出品되었던 「觀音三十二應幀」에 對하여는 本誌(第二卷三

號 通卷八)에 紹介하였다.

③ 知恩院에는 高麗寫經으로서 「十六觀經」이 所藏되고 있어 그 插圖는 이를과 判異하다고 하나 詳細한 것은 알 수 없다.

三川寺址 入口 磨崖如來像

鄭 明 鎬

서울서 坡州行 버스로 約 三〇分가면 高陽郡 神道面 所在地에 이른다. 여기서 下車하여 津寬寺①於口에서 東北方의 小路를 따라 개울을 건너 約 一〇m가면 栗林이 있는 周圍에 古瓦와 礎石이 散在하고 있는데 礎石은 羅末麗初의 手法을 지닌 二段의 molding이 있고 其外에 李朝時의 蓋瓦도 보인다. 이 곳에서 碑峰으로 가는 溪谷을 따라 約 五、六百m 올라가면 採石場에 이르게 되어 近處에 磨崖佛이 있다. 이 곳에서 約 百m 더 올라가면 三川寺址가 있는데 이 附近을 三川골(或은 三千골)이라고 한다.

이 磨崖佛은 今西龍博士의 紹介가 있기는 하나 ②實測及 實際調查까지 하지는 못한 것 같다. 그러므로 筆者는 一九六〇年 十二月初에 當地를 調査하여 그 優秀함에 驚嘆하였다. 多幸히 이 佛像의 保存은 良好한데 이 는 大花崗岩群斷崖에 浮彫되었고 上部에는 別石의 大岩이 屋蓋와 같이 上置되어 있는 點이 保存의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. 또 이 斷崖에는 지붕을 싸우기 위하여 凹型의 홈을 파서 지붕形을 이루었고 이를 받칠 支柱의 插入孔이 있다. 이 佛像의 左使身光을 浮彫한 外廓部와 接한 곳은 上下一直線으로 금이 가서 別石과 같이 切斷되어 있고 佛像 바로 前方에는 上流에서 흐르는 清水가 한층이 못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. 이 佛像 앞에는 信徒들의 精誠으로 築成한 작은 築臺가 있으며 그 곳에 少形祭壇이 重瓣蓮花臺座에 接해 있다. 佛像은 纖細한 彫刻의 立佛로서 全高 三・〇二m 身高 二・五九m 肩幅 八三cm 蓮花臺高 二三cm 幅 一・二六m 頭光의 外幅 七六cm 內光 約 五六cm이다. 佛像의 頭部는 剃髮形